# 광주 사교육비 증가 '전국 최고'

## 통계청 발표 '2007 한국 사회지표'

## 광주·전남 '실버취업' 18만명 육박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67만원

서울을 비롯 전국 7대 도시중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실버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취업환경의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등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1.8%)에 비해 0.2%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00년 이후 사교육비가 크게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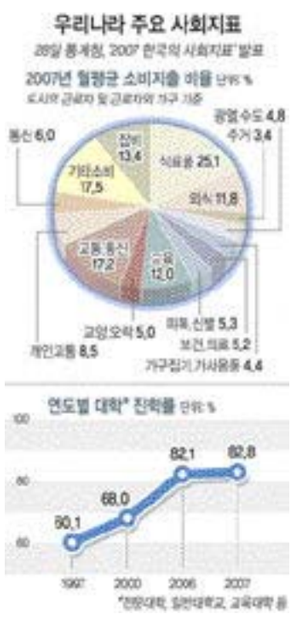
광주는 2006년 말 현재 교육비가 2000년보다 38.7%나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35.2%)은 물론, ▲서울(37.4%) ▲부산(35.0%) ▲대구(32.9%)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대입 학원비가 80.9%나 올랐으며, 유치원납입금(77.7%), 보습학원비(35.0%) 등이 급등했다.

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의 '실버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7만8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8% 증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5%에 그쳐 노인들에 대한 '고용의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난해 광주 등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7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4만3천원)에 비해 6.7% 높아진 것으로, 월평균 가계지출도 284만1천원으로 1년새 5.8% 늘었다. 소비지출도 234만9천원으로 2006년에 비해 5.8% 늘었다. 이들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구성비(엥겔계수)는 25.1%로, 전년(25.7%)에 비해 0.6%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06년의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10만명 중 134.8명이 사망했다. 이어 뇌혈관질환(61.4명), 심장질환(41.5명), 당뇨병(2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의 대학(교) 진학률은 82.8%로, 고등학교 졸업생 100명중 82명이 대학교로 진학했다. 이는 1997년(60.1%)에 비해 진학률이 22.7% 높아진 것이다.

한편 2006년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589만5천대로 1년새 3.2% 증가했다. 같은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4천19만7천명으로 1년간 4.8% 늘었으며, 초고속인터넷 총 가입자도 15.2% 늘어난 1천404만3천명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살 통통한 주꾸미**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수산물 매장 직원들이 28일 살이 오르고 머리에 알이 차있는 쫄깃한 주꾸미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출국전 현지계좌 개설 등

## 농협 'Direct 송금서비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가 고객중심과 현장경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NH외환을 위해 출국 전 현지계좌 개설과 중국 위안화(CNY) 'Direct 송금서비스'를 2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중국을 방문하려는 고객이 중국 공상은행 위안화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ATM(자동입출금기)을 통한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계좌 및 직불카드 발급비 3천원과 영업점 외환수입수수료 2천원을 포함해 5천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수출기업 환율 손익분기점은

# "1$ = 929원보다 떨어지면 적자"

### 광주상의 150개 업체 조사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환율하락으로 채산성 악화와 매출액 감소 등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 손익분기점 수준은 929.2원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최근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환율전망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제조기업들은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928.1원, 손익분기점 수준은 929.2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달러화 약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지역기업들이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연평균 원·엔 환율은 845.5원, 손익분기점 수준은 840.2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지속된 원화절상으로 인해 겪은 피해로 '채산성 악화(54.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출액 감소(28.2%)', '외화자산가치 하락(7.1%)', '수출계약 취소(3.5%)' 등을 들었다.

또 원화절상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에 대해 지역기업의 63.6%가 '별다른 계획없음'으로 응답했으며, '향후 실시할 계획', '이미 실시 중'으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20.5%,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기업들이 계획하거나 실시중인 원화절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제시기 조정(6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환율변동보험 활용(37.5%)', '수출가격에 전가(31.3%)', '은행의 선물환 구입(9.4%)', '자체 통화선물 거래(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감자·콩·양파·고추·수박

# 작물 재해보험 대상 추가

### 보험 상품 15종으로 늘어

올해부터 감자·양파·콩·고추·수박 재배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들을 포함, 모두 1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다음달 3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전국 지역·품목농협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해보험 본(本)사업 대상인 사과·배·포도·단감·떫은감·감귤·복숭아 등 7가지 품목의 경우 재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밤·참다래·자두와 올해 시범품목에 추가된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5월부터 주산지 농가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시범사업 품목의 재해보험은 강풍·가뭄·냉해·폭설 등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자연재해(All-risks)를 종합적으로 보장토록 설계됐다. 기존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로 범위가 한정돼 요인별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조사가 이뤄졌으나, 새로운 재해보험은 실제 수확량이 여러 가지 재해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 빅마트 비엔날레점

## 의류 전문매장 변신

빅마트가 3월1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비엔날레점 1층 매장을 의류 전문매장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리뉴얼을 통해 신개념 문화쇼핑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동안 가전·문화생활매장으로 이용했던 비엔날레점 1층에는 이번 새 단장을 통해 코오롱·제이플락·무자크 등 정통 의류, 베비라·BYC 등 아동·속옷의류를 포함해 19개 점포가 들어선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첫 노령연금 수급**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지사장 노주순)는 28일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3명에게 수급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수급자는 매달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북광주지사 제공〉

# "홍매·백매 앵글에 담아 보세요"

### 보해양조, 내달 해남서 매화사진 촬영대회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오는 3월 22일 국내 최대의 매실단지인 전남 해남의 보해 매실농원에서 '제 7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한다.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는 프로에서부터 아마추어까지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인 이번 대회는 보해 매실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홍매, 백매를 배경으로 유명모델 4명이 출연해 땅끝에 찾아온 봄의 운치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3월21일까지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 홈페이지(www.bohaephoto.co.kr)를 통해 인터넷 예약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

# 금호고속, 경남지역 노선 본격 진출

### 가야강남고속 시외노선 일부 양수 내일부터 운행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가야강남고속의 시외버스 노선 일부를 양수해 3월1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금호고속은 지난해 10월 가야강남으로부터 여수~순천~울산~부산 노선을 양수받아 운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동마산~부산(노포) 노선을 양수받아 운행을 개시했다.

그리고 오는 3월1일에는 개통식과 함께 부산(노포)~울산, 부산(노포)~방어진, 통영~부산(노포)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와 경남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있었으나,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없었던 금호고속은 이번 가야강남고속의 노선을 양수해 운행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남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가야강남고속의 노선 양수를 통해 직행부문 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정남진장흥농협 등 9곳

## '경영평가 우수' 표창

장흥군의 정남진장흥농협을 비롯한 전남도내 9개 조합이 2007년 종합경영평가 결과 전국 우수조합으로 선정돼 중앙회장 표창을 받게 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남진장흥·담양·금정·굴비골·월산·마한·산포농협은 경영우수부문에서, 문평·도포농협은 경영향상부문에서 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실익지원사업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문평농협은 순자본비율 등 재무관리부문에서 향상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